

# 中共의 外交政策과 韓半島

鄭鍾旭

<目次>

- |                              |                           |
|------------------------------|---------------------------|
| I. 序論                        | V. 中共外交의 一般的 特徵 一文革期      |
| II. 中共外交政策의 一般的 特徵<br>—對蘇依存期 | VI. 中共外交의 一般的 特徵 一美·中 대당뜨 |
| III. 中共外交의 一般的 特徵 一獨自路線 모색기  | VII. 4個近代化計劃과 中共의 外交政策    |
| IV. 中共外交의 一般的特徵 一中蘇冷戰期       | VIII. 最近中共外交의 特徵과 韓半島     |

## I. 序論

中共의 外交政策은 1976년의 毛澤東 死後, 특히 四人幫의 被清算과 함께 등장한 華國鋒, 鄧小平體制의 出帆以來 急激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1978년 8월의 日·中平和友好條約締結이 그렇고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美·中國交正常화가 그렇다. 反霸權과 四個近代化를 내세운 鄧小平이 日本을 방문했고 79년 1월에는 역사적인 미국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外交政策의 方向轉換은 國內政治上에서도 相應한 變化를 수반하고 있다. 制限된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個人的 自由와 人權이 法的으로 보장되고 經濟分野에서도 合理性과 効率性의 追求를 내용으로 하는 상당히 폭넓은 改革이 진행되고 있다.

毛澤東의 遺產은 毛自身의 이름을 빌어 차츰 정리되고 있으며 毛의 遺產相續者들이 거의 完全한 失權상태에 있다. 지난 1978년 12월의 第十一次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第三期 全體會議 (第11期 3全中)에서 毛의 遺產정리작업을 일단 마무리지워 美·中國交正常化를 비롯한 親西方的 外交政策을 승인했으며 동시에 鄧小平의 權力を 더욱 확고하게 하는 일단의 人事조치를 인준한 것으로 보인다. 毛의 側近이었으며 黨副主席인 汪東興의 黨內序列이 格下되었고 四人幫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吳德, 紀登奎, 陳錫聯과 大寨의

英雄 陳永貴가 역시 格下당했고 그 반대로 鄧의 側近인 胡耀邦이 黨總書記 겸 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

本論文은 이러한 最近의 中共 內外政策의 變化를 고려하면서 그 外交政策部分의 分析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中共의 最近 親西方外交政策이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의 主對象으로 한다.

本論文의 基本前題는 連繫理論(linkage theory)이다. 連繫理論이 여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連繫理論이란 이 用語를 外交政策의 體系的 分析에 최초로 도입한 학자인 제임스·로즈노가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임스·로즈노는 國家의 外交政策이 그 國家의 國內的 特徵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國內的 特徵 中에서 특히 크기, 經濟發展의 정도 및 政治制度가 가장 중요한 變數라고 주장한다<sup>1)</sup>. 그러나 제임스·로즈노는 이러한 國內特徵變數를 運用化(operationalize)하는데 있어 극히 單純한 方法을 사용하여 주로 二分化(dichotomize)했다. 그래서 크기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 경제발전이 된 국가와 되지 못한 국가, 그리고 政治制度가 開放的인 국가와 閉鎖的인 국가로 나누어서 모든 國家들을 8가지 類型으로 나누웠다.(도표 1 참조)

도표 1. 제임스·로즈노의 連繫理論

國內 屬性의 特徵									
外政特徵	크기	L				S			
		經濟 발전		LD		D		LD	
		O	C	O	C	O	C	O	C
外交政策特徵		1	2	3	4	5	6	7	8

보기 : L: large

S: small

D: developed economy

LD: less developed economy

O: open political system

C: closed political system

1) James Rosenau, *Linkage Politics* (Free Press, 1969), "Toward the Study of National-International Linkage," pp. 44-66.

- 1: 크기가 크고 경제가 발전되고 政治體制가 開放的인 國家
- 2: 크기가 크고 경제가 발전되었으나 閉鎖的인 政治體制를 가진 國家
- 3: 크기가 크나 경제발전이 뒤떨어졌고 政治體制가 開放的인 國家
- 4: 크기가 크나 경제발전이 뒤떨어졌고 政治體制도 閉鎖的인 國家
- 5: 크기가 작으나 경제가 발전되었고 政治體制가 開放的인 國家
- 6: 크기가 작고 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閉鎖的인 政治體制의 國家
- 7: 크기가 작고 경제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開放的인 政治體制의 國家
- 8: 크가기 작고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고 閉鎖的인 政治體制를 가지고 있는 國家

제임스·로즈노는 이러한 8가지 類型의 國家들이 各類型에 맞는 特殊한 外交政策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國家의 國內的 屬性들을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및 정치체제의 세가지로 나누는 문제부터 고찰해 보면 제임스·로즈노 뿐만 아니라 經驗的 자료들을 통계학적 방법에 의해 分析한 많은 行態主義政治學者들도 國家의 國內的 屬性들이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및 정치체제의 세가지 變數들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36가지의 國家의 國內的 屬性을 列舉,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자료를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이라는 高次元의 통계학 방법에 의해 分析한 루돌프·럼멜도 결국 이를 236가지의 國內屬性變數들이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및 정치체제라는 3가지 要因(factor)에 의해 무리없이 대표될 수 있다고 결론지웠다<sup>2)</sup>.

그러나 제임스·로즈노가 이를 세 變數를 二分化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루돌프·럼멜은 보다 高次元의in 運用方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基本前題가 되는 理論的 틀도 두 학자 사이에 完全히 다르다.

루돌프·럼멜의 場의 理論(field theory)은 어느 특정한 兩國間의 相互作用으로 이해된 外交行爲가 그 兩國의 國內的 屬性의 差의 總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제임스·로즈노의 連繫理論은 이러한 엄격히 규정된 數學的 理論의 뒷받침 없이 좀 막연하고 直觀的인 主張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本論文에서는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및 정치체제의 세가지 變數를 二分化한 제임스·로즈노의 連繫理論이나 보다 정교한 수학적 이론을 뒷받침으

---

2) Francis W. Hole & Dina A. Zinnes, eds., *Quantitative International Politics: An Appraisal*, (Praeger, 1976), Part II; R. Rummel, "Dimensions of Conflict Behavior Within and Between Nations," in Jonathan Wilkenfeld, ed., *Conflict Behavior & Linkage Politics* (David McKay, 1977), pp. 59-106.

로 하고 있는 루돌프·럼멜의 場의 理論이 모두 不適當하다고 보고 이들을 排擊하고 있다. 이들 두 학자들의 이론이 이론 자체와 이를 뒤받침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 그리고 變數의 運用化 과정에서 많은 결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보다 낳은 代案이 등장해서 경험적으로 그 効用性이 증명되지 않는 한 本論文의 目的에는 不適當하다고 본다.

本論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連繫理論이란 一國의 外交政策이 그 國內的 屬性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극히 평범하고도 一般的인 뜻을 가진다. 一國의 外交政策은 크기나 경제발전의 정도 및 정치체제에 따라 相異할 뿐 아니라 外交政策決定者의 價值觀과 世界觀, 外交政策 決定과정이나 조직의 特징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政策決定의 心理學的 接近方法은 外交政策決定에 있어 政策決定者들의 心理的 要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sup>3)</sup>.

이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本論文에서는 먼저 中共에서 가장 중요한 外交政策決定者였다고 할 수 있는 毛澤東의 世界觀 또는 國際社會의 구조에 대한見解를 중심으로 1949년 이후의 中共의 外交政策을 分析한 다음, 끝으로 日・中平和友好條約과 美・中國交正常화의 背景을 規明하고 이들이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 展望하는 순서를 택한다.

## II. 中共外交政策의 一般的 特徵 一對蘇依存期

오랜 內戰 끝에 1949년 10월 北京에 中央政府를 수립한 中共은 처음부터 親蘇一邊到(lean on one side)의 外交政策을 표방했다. 1921년 上海에서 中國共產黨이 創設된 이후 1949년 政權을 수립할 때까지 中共과 蘇聯과의 관계는 반드시 順調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2차대전이 끝나고 中央政府를 수립한 中共의 지도자들은 蘇聯과의 同盟이 唯一한 새로운 外交路線이라고 생각했다<sup>4)</sup>.

3) Robert Jervis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1970) and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1976); Irving Jonis, *Victims of Groupthink* (Houghton Mifflin, 1972).

4) John Gittings, *The World and China, 1922-72*. (Eyre Methuen, 1974); Wang gung-wu, *China and the World since 1949: The Impact of Independence, Modernity and Revolution* (Macmillian, 1977); Micheal Yahuda,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Croom Helm, 1978).

2차대전直後 조지·마샬에 의한 國共間의 仲裁노력등 美國과 中共間에友好關係가 성립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全無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美國은 蔣介石의 自由中國을 支持하는 입장은 굳하고 있었고 이에 비해 蘇聯은 좋은 싫든 中共과 理念을 같이하는 兄弟國이라는 생각이 中共의 지도층 내에서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1949년 12월에 毛澤東이 모스크바 訪問의 첫 外遊 길에 올랐고 이듬해 2월 中·蘇相互 防衛條約이 체결됨으로써 두나라 사이는 理念과 政治體制를 같이하는 관계를 넘어 軍事同盟이 성립되었다.

韓國戰爭과 中共軍의 參戰은 中共과 美國 사이에 존재했던 희미하나마 한가닥의 和解가능성을 散霧시켰고 中共의 親蘇一邊倒政策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초래했다<sup>5)</sup>.

理念과 政治體制의 공통점을 떠나서라도 中共은 蘇聯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오랜 內戰과 韓國戰爭에의 參加는 中共의 經濟回復을 더욱 시급한 當面課題로 제기하고 있었으며 1953년부터 실시된 第1次 5個年經濟發展計劃은 蘇聯의 經濟援助 없이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第1次 5個年經濟發展計劃의 核心을 이루고 있던 것은 重工業分野의 再建이 있고 156개 항목의 주요한 대규모 工業프로젝트는 蘇聯의 援助로 蘇聯技術者들의 자문과 감독 밑에 이루워졌다<sup>6)</sup>.

이러한 外交政策에 관련해서 中共 外交政策決定者들의 世界觀도 國際政治를 共產主義와 自由民主主義의 歷史的 對決이라고 보는 맙스의 視角에 의해 특징지워졌다.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資本主義陣營은 蘇聯을 頂點으로 하는 共產陣營에 의해 궁극적으로 代置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맙스·레닌의 理念을 같이 하는 世界의 共產國家들도 이 歷史的 對決에 주저없이 가담 蘇聯을 支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sup>.

中立이란 이러한 歷史的 召命을 外面하는 行爲이며 따라서 不道德하며 容納될 수 없는 政策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후 中·蘇關係는 冷却되기 시작했고 中共의 外交政策도 서서히

5) *Ibid.*

6) Chong Wook Chung,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Manag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65*.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1975), chap 2.

7) Micheal Yahuda, *Ibid.*,

變貌하기 시작했다.

中·蘇關係의 冷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데에는 學者에 따라 異見이 있다. 毛澤東이 1962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中·蘇關係의 균열을 1958년부터라고 한다<sup>8)</sup>. 그러나 1954년부터 中·蘇關係의 양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1957년 말 또는 1958년 초부터 두나라 사이는 冷却상태에 돌입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한 것 같다.

마이클 야후다의 主張을 빌면 1949년부터 53년까지는 中共이 蘇聯에 一方的으로 依存하는 시기였고 54년부터 57년까지는 中共의 對蘇依存度를 줄이고 상당히 獨自的인 外交政策을 수행했던 시기라고 한다<sup>9)</sup>. 또한 58년부터 63년까지는 中·蘇紛爭이 서서히 表面化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sup>10)</sup>.

蘇聯의 技術者들이 中共에서 철수한 1960년부터 中·蘇紛爭이 本格화한다는 지금까지의 通念을 마이클 야후다는 부인하고 있다<sup>11)</sup>. 그에 의하면 中·蘇의 同盟關係는 深度가 弱化되긴 했지만 1963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때까지 양국은 서로를 同盟國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中共의 對蘇外交政策은 ①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依存期, ② 1954년부터 57년까지의 獨立期, ③ 1958년부터 63년까지의 冷戰期, ④ 1964년 이후의 敵對期로 나누워진다고 볼 수 있다.

1964년 이후의 中·蘇關係도 다시 細分할 수 있는데 69년의 珍寶島衝突을 계기로 양국간의 敵對關係가 固着, 長期化하며 그 이후에는 林彪事件과 四人幫 숙청사건을 제외하고는 對蘇敵對關係의 固着과 비례해서 中共의 對西方接近이 固着, 深化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III. 中共外交의 一般的 特徵 —獨自路線 모색기

一部 學者들은 中共의 對蘇依存期에 해당하는 1949년부터 53년 사이의 시기에서도 中共의 獨自的 外交路線이 쟁트고 있었다고 주장한다<sup>13)</sup>. 對蘇一邊

8) Mao Tse-tung, "Speeches to 7,000 cadres," 毛澤東思想萬歲.

9) Micheal Yahuda, *Ibid.*

10) *Ibid.*

11) Harold Hinton, *Comm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Micheal Yahuda, *Ibid.*;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Brookings Institution, 1973), chap. 4.

12) Micheal Yahuda, *Ibid.*

13) *Ibid.*, pp. 44-45.

倒의 外交路線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毛澤東이 1949년 6월 30일에 쓴 『人民民主主義獨裁論』은 모든 中國人們이例外없이 社會主義나 帝國主義 중에서 하나를 指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4)</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毛가 社會主義나 帝國主義 중에서 어느 하나를 指一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적어도 이론상으로 帝國主義(資本主義)와 結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또한 毛는 같은 논문에서 中共이 國內의으로 都市의 小부르조아지 계급과의 聯合戰線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蘇聯이나 東歐의 共產主義國家들에서 異端視되고 있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毛는 여기서 美國이나 英國등의 資本主義國家들과 장차 交易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sup>15)</sup>.

그러나 1949년~53년 동안의 中共의 外交政策은 對蘇一邊倒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 기간동안 中共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共產國家들을 承認하는 반면 中共을 承認한 몇몇 資本主義國家들과는 外交關係를 수립하지 않았다. 1949년에 中共의 對外貿易의 8퍼센트에 불과했던 蘇聯과 東歐共產圈과의 交易은 1951년에 61퍼센트로 치솟았고 다음해에는 70퍼센트로 증가했다<sup>16)</sup>.

中共이 1954년부터 獨自의 外交路線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國內外의 多樣한 事態發展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우선 國內事情을 살펴보면 1954년 봄의 高崗事件을 들 수 있다<sup>17)</sup>. 52년까지 東北政府의 主席으로 있다가 北京의 中央政府의 國家企劃委員會主任 겸 重工業部長으로 취임한 高崗은 黨政治局員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實力者였고 東北政府의 主席으로서 蘇聯과 가까웠을 뿐 아니라 蘇聯의 援助와 지도 아래 진행되고 있던 經濟回復作業의 總責격이었다.

그렇게 강력한 實力者였던 그가 1954년 2월 北京에서 열렸던 黨第7次 中央委員會 第4期 全體會議(第7期 4全中)에서 反黨行爲의 낙인이 찍혀 사실상 숙청당하고 말았다. 그의 숙청은 공식 이유야 어쨌든 中·蘇關係의 측면에서 2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었다.

첫째는 그가 蘇聯에 가까운 黨지도자들의 대표격이라는 점에서 그의 숙청

14) Mao Tse-tung, "On the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Selected Words of Mao Tse-tung*, Vol. 4, p. 415.

15) *Ibid.*

16) *People's China* (人民中國), Vol. 3, No. 7 (1951); No. 20 (1952).

17) Chong Wook Chung,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Management*, *ibid.*

은 對蘇관계에 중요한 전환기로 꼽을 수 있으며 둘째 그가 重工業發展에 力點을 두는 蘇聯類型의 경제개발정책의 대표적 推進者였다는 점에서 그의 속칭은 中共의 경제발전정책이 맹목적으로 蘇聯의 그것을 모방하는 시대를 탈피하여 中共의 經濟現實에 맞는 獨創的 經濟發展方案을 모색하는 轉換點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中共에서는 蘇聯의 영향력이 가장 극심했던 東北지방에서 부터 시작해서 蘇聯의 一長制(edinonachalie) 制度가 도입되어 있었으며 東北政府의 主席이었던 高崗이 中共에서 一長制를 導入하는데 선봉장이 되어 있었다<sup>18)</sup>. 一長制란 單一企業體 내에서 企業經營에 필요한 모든 權利를支配人이 장악하는 대신 企業體의 經營결과에 대해서도支配人이 全的으로 그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특히 重工業分野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一長制는 企業과 企業간의 관계 및 企業과 지방정부나 黨委員會의 관계에도 중요한 뜻이 있으며 이 제도 밑에서는 企業體에 대한 統制權을 地方의 黨組織이 아닌 中央의 工業部署가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一長制는 企業經營 그리고 나아가서 經濟發展의 諸般 政策에 대해 黨官僚보다 테크노크라트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의미했으며 資格을 갖춘支配人們이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의 中共의 實情에는 適合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9)</sup>.

다시 말해 重工業 우선정책과 함께 一長制는 中國의 現實에 맞지 않는 蘇聯의 制度를 맹목적으로 導入한 對蘇一邊倒政策의 否定的 본보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따라서 高崗의 속칭과 함께 重工業 우선정책과 一長制가 비판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中·蘇관계에서 中共이 맹목적으로 蘇聯에 依存하던 시기가 사실상 끝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對外的으로는 1954년부터 中共의 外交政策은 從前과는 달리 對中立國外交에 역점을 두게 된다. 韓國戰爭을 계기로 美國의 對中國封鎖政策이 강화됨에 따라 對蘇一邊倒政策의 한계를 中共은 차츰 느끼기 시작했고 아시아·아프리카의 新生中立國들의 支持를 얻는데 外交的 努力を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에집트의 낫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함께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中立國 29個國이 모인 가운데 第1次 非同

18) Ibid.;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1973).

19) Ibid.

盟國會議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반동會議는 여러가지 점에서 中共의 外交政策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會議는, 야후다가 지적한 것처럼, 中共이 他國과의 外交的 문제를 政府間의 外交체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최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둘째 中共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諸國의 부르조아지政府와의 사이에 共通의 目的과 利害관계가 存在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會議는 中共이 蘇聯과는 完全히 獨自의으로 前殖民地國家들과 共同의 紐帶를 수립한 최초의 例였다.

반동會議 당시에는 中共지도자들이 자신들의 對中立國外交가 社會主義 全體의 利益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中蘇間의 冷戰이 시작되면서 中共은 反帝 투쟁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차 重視하게 되었고 中共 자신이 이들 아시아·아프리카 國家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中共이 對蘇一邊倒의 依存에서 벗어나 獨自의 外交路線을 모색하는 이 시기에서 발생한 또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會議였다. 이 會議는 中共이 獨立主權國家로서, 더욱 國際會議에서 主要發言權을 가진 國家로서 참석한 최초의 會議로서 中共의 政治的 軍事的 영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會議에 참석한 周恩來는 中共의 役割을 아시아 地域에 국한시키지 않고 오히려 超地域的 立場에서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하려 했다<sup>21)</sup>.

#### IV. 中央外交의 一般的 特徵 一中·蘇冷戰期

中·蘇紛爭의 시작은 中共側이 1959년부터 잡고 있는데 비해 蘇聯側은 1958년 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中共側은 中·蘇紛爭이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原則에 관한 문제때문에 시작되었으며 1956년의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採擇된 國際共產主義運動과 平和共存 문제가 中·蘇분쟁의 핵심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2)</sup>. 이에 비해 蘇聯側은 中·蘇분쟁의 시작이 1958년부터 본격화된 毛澤東과 그側近들

20) Micheal Yahuda, *ibid.*, pp. 75-81.

21) *Ibid.*, pp. 67-68.

22) *Ibid.*, pp. 102-103.

의 民族主義的 意識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中共側과 蘇聯側의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가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中・蘇紛爭이 그만큼 복잡한 사건이며 一聯의 사건들이 累積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시발점을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本論文에서 1958년을 中・蘇紛爭의 시발점으로 잡은데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中・蘇紛爭은 1958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中共의 國內事件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 中共에서는 大躍進運動이 시작되었으며 大躍進운동은 中共이 경제발전에서 對蘇依存期를 벗어나 獨自的 모형을 추구하려는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서 경제발전에서 中共이 蘇聯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였다<sup>23)</sup>.

中共의 지도층에서는 第1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1956년 초부터 第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에 대한 구상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第1次 5個年計劃은 1953년부터 57년 까지였으나 54년 까지는 완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年次計劃에 依存하여 그전부터 해오던 經濟回復 작업을 계속해온 셈이였으며 본격적인 計劃의 실시는 5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해에 中共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早期完成을 위해 各種 캠페인 이 벌어졌으며 56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第八次 全黨大會와 관련, 第2次 5個年計劃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다<sup>24)</sup>.

1次 5個年계획은 이미 지적한 대로 蘇聯의 영향을 받아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적으로는 소련과 가까운 內陸지방 또는 東北지방에 投資의 우선을 부여하였다. 농업과 경공업부분은 이른바 傳統的 餘地(traditional margin)에 의존하여 성장하도록 방치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소련식의 경제발전정책이 가지는 결점이 하나 둘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첫째 中共은 소련과 달라 경작지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높아 농업부분을 투자없이 오래 방치해 두면 그 영향이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1956년께 이르러 傳統的 餘地도 거의 바닥이 나서 농업부분의 성장을 둔화되었고 새로운 資本의 투입없이는 경제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23) Chong Wook Chung,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Management*, *ibid.*, chap 4.

24) *Ibid.*

1956년 9월에 개최된 第8次 中國共產黨 全黨大會에서 발표된 第2次 5個年 경제 발전계획의 要綱은 농업과 경공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긴 했지만 投資의 우선은 여전히 중공업 부분에 있었다<sup>25)</sup>. 이것은 中共이 54년부터 獨立的 外交路線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국내 정치 경제부분에서도 對蘇依存一邊倒에서 離脫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中·蘇同盟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5년의 아시아·아프리카會議도 中共이 主導役割을 하긴 했지만 中共이 이것을 反蘇運動의 一環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中共의 對非同盟國外交가 궁극적으로는 共產陣營의 利益에 보탬이 된다고 中共은 주장했고 이것을 의심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56년의 第20次 蘇聯共產黨 全黨大會의 決定, 특히 후르시초프의 스타린 個人崇拜공격이나 그의 平和共存理論을 毛澤東이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中·蘇紛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次 5個年計劃에서 中共이 소련의 경제개발 類型을 큰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部分的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강조했다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中共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7년 말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世界共產黨大會에서 毛澤東은 蘇聯을 頂點으로 共產國家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中共의 外交政策이 中·蘇同盟의 큰 테두리 안에서 運用의 妙를 살리는 것임을 암시했다. 毛의 모스크바 訪問을 앞두고 소련은 스프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렸고 毛는 이것이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共產主義體制의 優越性을 입증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東風이 西風을 壓倒한다라는 毛의 유명한 發言도 바로 이러한 毛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毛를 비롯한 中共의 지도자들은 국제정치의 핵심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對決이라는 맙스·레닌의 理念的 틀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理論이 이러한 기본적인 국제정치의 틀에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후르시초프의 政策을 수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8년에 접어 들면서 이러한 中共 지도층의 기본사고에 결정적인 변

25) 人民手冊, 1956(北京, 人民出版社).

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거나 나타났다.

大躍進운동의 핵심은 막스가 말한 歷史발전의 단계를 中共이 뛰어넘어 단번에 공산주의 사회로 돌입할 수 있다는,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異端의인 사고방식이였다. 또한 大躍進운동의 시작에 즈음하여 1958년 5월 말부터 7월에 걸쳐 장기간 개최되었던 中共黨軍事委員會는 中共의 國防政策을 근본적으로 수정, 각 人民公社에 民兵隊를 조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國防政策에서 소련 類型을 離脫하고 獨自의 방위전략을 수립했다<sup>26)</sup>.

또한 이 회의에서 中共은 獨自의 核武器開發을 결정했다<sup>27)</sup>. 이에 앞서 57년 10월 中共과 蘇聯은 『國防을 위한 新技術 協定』((Agreement on New Technology for National Defense)에 조인, 소련이 中共의 核武器개발에援助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이 合意사항을 어기고 약속했던 原子彈模型을 中共에 제공하지 않았고 앞서 말한 中共의 黨軍事委員會會議가 끝난 직후인 58년 7월 31일부터 4일간 北京을 방문한 후르시초프는 소련과 中共이 合同艦隊를 창설하자고 제의했다<sup>28)</sup>. 후르시초프의 이러한 제의를 소련이 中共의 海軍을 장악하려는 기도로 中共지도자들은 해석했고 이로서 中·蘇간의 不信과 不和는 더욱 깊어갔다.

그후 大躍進운동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원래부터 못마땅해하던 후르시초프는 이것이 毛의 農村공산주의의 妄想이라고 비난했고 다음 해인 1959년 6월 『國防을 위한 新技術協定』을 일방적으로 폐기시켰다. 58년 7월 후르시초프의 北京 訪問 직후 毛는 臺灣海渾의 危機를 造成하기로 결정했고 臺灣海渾의 危機 중 미국이 中共에 대해 核攻擊을 암시했을 때 소련이 外面했다는 사실은 中·蘇同盟에 대한 中共지도자들의 회의감을 더욱 깊이 했던 것이다.

이러한 中·蘇間의 不信과 不和는 中共과 印度와의 國境紛爭을 둘러싸고 蘇聯의 對中共支援이 극히 미미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印度를 두둔하는 태

26) Micheal Yahuda, *ibid.*, p. 106.

27) *Ibid.*

28) 毛澤東思想萬歲, “十中全會에서의 演說”, 1962년 9월 24일. 이 회의에서 毛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1958년 이후부터 후르시초프는 중국해안을 봉쇄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合同합대를 창설하여 우리의 합대와 해안선을 동시에 장악하려고 했다. 이 일 때문에 후르시초프가 중국에 왔던 것이다.

29) Thomas Bernstein, “A Comparative Study of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 China Quarterly*, 1969.

도를 취함으로써 더 한층 深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連繫理論의 입장에서 보면 50年代末의 中·蘇關係는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大躍進운동은 國內的으로 中共지도자들이 中共의 장래와 共產圈의 그것에 관해 樂觀論에 가득차 있을 때였다. 國내적으로 中共은 政權 수립 이후 經濟回復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第1次 5個年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냈고 농촌부분에서도 성장율이 낮긴 했지만 農業合作社(Agricultural cooperatives)를 성공적으로 조직, 적어도 毛가 생각하기에는 大躍進의 기틀을 마련했었다<sup>29)</sup>.

국제적으로도 소련의 스프트니크 發射는 毛를 비롯한 中共지도자들에게 共產主義의 優越性을 입증한 것이었고 그밖의 국제정치의 움직임이 共產陣營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資本主義國家들은 對共產圈과의 대결을 굳히고 있었다. 美國과 서방국가들은 中東사태에 무력개입을 단행했고 아시아·아프리카의 新生國에 대한 援助를 증가했고 일본은 58년 中共과 무역협정교섭을 중단함으로써 日·中關係가 冷却되었다.

따라서 國內外의으로 樂觀論에 가득차 있던 中共지도자들은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理論에 불만을 표시, 東西對決에서 蘇聯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中·蘇간의 國際情勢에 대한 異見은 양국간의 관계를 冷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60년대에 접어들면서 蘇聯의 技術者들이 中共에서 철수하고 1961년 10월의 蘇聯共產黨 第22次 全黨大會에서 中共代表로 참석한 周恩來가 退場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中·蘇冷却是 더욱 촉진한 것은 1962년 7월 美·蘇간의 部分核實驗禁止 조약의 假署名이었다. 中共은 이 協定을 『美國과 蘇聯이 核武器를 獨占하려는 음모』이며 『美帝의 核위협에 대처하여 中共이 核武器를 개발하려는 正當한 權利』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sup>30)</sup>. 中共의 獨自의인 核武器開發은 蘇聯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獨自의인 外交政策을 수립하려는 毛澤東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美蘇間의 部分核實驗禁協定은 이러한 毛의 노력을 美國과 蘇聯이 共同으로 저지하려는 기도로 해석되었다.

30) *The Polemic on the General Lin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FLP, 1965), p. 96, Quoted by M. Yahuda, *ibid.*, p. 113.

그러나 이러한 中·蘇關係의 冷却에도 불구하고 1967년 까지 양국은 同盟 관계를 유지했었고 양국간의 異見도 同盟간의 큰데두리 속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0년 8월 蘇聯의 技術者들이 中共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뒤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81개국 공산당들이 서명한 이른바 『모스크바 宣言』에 中共은 署名했으며 다음 해 第22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周恩來가 退場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蘇聯의 경제사절단이 北京을 방문했고 中·蘇同盟 11주년 기념식이 北京에서 盛大히 거행되었다.

1962년 1월에 행한 毛澤東의 연설에서 分明한 것처럼 中共지도자들은 1962년 부터 蘇聯의 共產主義가 修正主義로 變貌했다고 믿고 있었다<sup>31)</sup>.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毛와 그밖의 中共지도자들은 후르시초프나 기타의 蘇聯지도자들을 說得, 蘇聯의 外交政策의 誤謬를 是正하려고 하고 있었다. 即同盟의 태두리 안에서 양국간의 異見을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64년 이후부터 中共은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고 蘇聯과의 同盟體制를 完全히 離脫하여 文字 그대로 獨自的 外交路線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毛의 말을 빌면 1963년까지만 해도 國제정치상의 가장 중요한 矛盾은 帝國主義와 公산주의와의 對決이었다.

세계의 인민과 제국주의자들간의 모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국가들의 인민들은 反動부르조아지와 反動民族主義者들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의 인민들과 수정주의자들 사이에도 모순이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도 모순이 있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도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 내부에도 모순이 있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한다<sup>32)</sup>.

다시 말해 소련의 수정주의와 그밖의 공산주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모순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존재하는 모순에 비하면 副次의인 것이며 따라서 中共은 蘇聯과의 異見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蘇의 同盟이 공식적으로 파괴되고 양국관계가 敵對관계로 變貌한 것을 修正主義와 『세계의 인민』들간의 모순이 帝國主義와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해진 이후부터였다.

31)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V, p.341.

32) *Mao Tse-tung Unrehearsed*, Stuart Schram, ed., p.192.

## V. 中共外交의 一般的 特徵 —文革期

64년 이후 中共의 外交政策은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의 第三世界에 집중되었다. 64년 이전에도 이 지역에 대한 外交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때에는 이 지역에 대한 中共의 外交가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결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앞세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第三世界的 國家들이 맑스·레닌주의를 信奉해야 한다고 中共은 주장했었다. 이 당시 맑스·레닌주의의 起源地는 소련이었고 中共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64년 이후부터는 中共은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毛澤東思想이 바로 맑스·레닌主義의 正統的 後繼者이며 따라서 中共의 公산주의가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의 諸革命 내지는 進步的 集團들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년 이전까지는 毛澤東思想이 맑스·레닌主義를 中國의 現實에 알맞게 그리고 獨創的으로 變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64년 이후에는 毛澤東思想이 唯一한 正統的인 맑스·레닌주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美國의 帝國主義가 세력 확장을 피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지역에서 中共이 가장 중요한 社會主義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3)</sup>.

毛澤東이 아프리카·아시아 및 南美의 공산주의 운동지도자들과 會見한 사전들이나 기사들이 中共의 신문들에 크게 보도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러한 中共의 第3世界 外交는 文化革命期間동안 특히 강조되었다. 이 기간중에 外國에 주재하고 있던 모든 中共 外交官들이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唯獨 카이로에 주재하고 있던 黃華만이 任地에 남아 있었던 것도 이기간 동안 中共外交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第3world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었느냐 하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第3world外交는 失敗로 끝났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中共의 第3world外交는 中共이 이들 第3world 국가들과 聯合戰線

---

33) George Yu, *China and Tanzania: A Study in Cooperative Intera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70); Alaba Ogunsonwo, *China's Policy in Africa, 1958-1971* (Cambridge, 1974).

을 펴 蘇聯에 對抗하겠다는데 主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主目的은 이들 第3世界에서 革命의식을 고취하여 이를 지역에 대한 侵略과 세력확장을 피하고 있는 美國帝國主義에 對抗하려는데 있었다. 마이클·야후다의 주장처럼 이때 中共은 反蘇聯合戰線과 反美聯合戰線을 別個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sup>34)</sup>.

따라서 中共은 이들 第3world의 革命的 集團이나 進步的 集團에 대한 援助를 강조했고 이러한 中共의 外交政策은 이들 第3world 國家들의 執權層으로부터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둘째 反蘇聯合戰線과 反美聯合戰線을 別個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中共의 第3world 外交의 기본전제는 中·蘇간의 관계가 점차 敵對관계로 변하고 美國과 蘇聯이 中國을 비롯한 第3world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위해 새로 野合하고 있다고 中共이 주장하게됨에 따라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1965년 第2次 非同盟會議를 개최하려는 中共의 맹렬한 노력은 蘇聯의 방해와 反蘇聯合과 反美聯合戰線의 區分이 애매해짐에 따라 一部 非同盟國들이 參加를 기피함으로써 流產되고 말았다.

셋째 中共의 第3world外交의 失敗는 越南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越南戰이 激化됨에 따라 中共은 美國과의 戰爭 가능성을 진지하게 우려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1965년 周恩來와 뒈·리스크간의 默認에 의해 越南戰이 中共의 영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sup>35)</sup>. 이러한 사태 발전은 反美聯合戰線이라는 中共의 對第3world外交의 기본을 흔들어 놓았다.

넷째 中共은 64년부터 66년까지의 3년동안 이들 第3world에 대해 비교적 활발한 外交活動을 전개했으나 그후 國內에서 文化革命이 걸림을 수 없을 상태로 전개됨에 따라 자연 外交一般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第3world外交도 副次的 關心의 對象으로 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中共의 第3world外交가 失敗로 끝난 직접적인 원인은 中·蘇紛爭의 激化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反美와 反蘇聯合戰線의 分離를 前題하고 있던 中共의 第3world外交는 中·蘇紛爭의 激화와 함께 그限制가 애매해졌을 뿐아니라 68년 8월의 체코슬로바키아事態 이후부터는 中共의 關心이 對蘇위협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第3world에 대한 外交는 그만큼 덜

34) M. Yahuda, *ibid.*, Chap. 5, pp. 145-7.

35) 美·中대塘뜨交涉에 대해서는, Marvin & Bernard Kalb, *Kissinger* (1974).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蘇紛爭의 격화와 第3世界 外交로 특징지워지는 64년부터 69년 까지의 기간 중에 나타난 中共外交의 중요한 특징은 西方資本國家에 대한 中共의 태도변화라는 점이다. 이것은 1964년 1월 21일자 人民日報 社說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中・蘇紛爭이 시작된 이후 中共外交의 기본로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中間地帶理論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46년이었다. 당시 앤나·루이스·эм스트롱과 만난 毛澤東은 美國과 蘇聯과의 戰爭이 생기는 경우 美國은 蘇聯을 侵略하기에 앞서 美國民들을 侵攻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美國과 蘇聯 사이에 存在하는 中共을 포함한 國각들을 侵攻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36)</sup>.

그후 1958년에 毛는 다시 中間地帶라는 用語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주로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의 第3世界를 치칭하는 것이다. 美國의 『帝國主義의 侵略』의 직접적인 대상이 바로 이 中間地帶이며 中共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은 美國이 이를 中間地帶를 장악한 후에야 侵略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964년 1월 21일자 人民日報의 사설은 中間地帶를 2개로 區分, 第1中間地帶와 第2中間地帶로 나누었다.

中間地帶를 장악하려는 美國帝國主義者들의 기도는 이지역의 모든 人民들과 國家들의 反對에 봉착할 것이다. 이 방대한 中間地帶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 지역의 독립국이나 또는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第1中間地帶라고 부를 수 있다. 두번째 부분은 西歐羅巴 全域과 大洋洲, 캐나다 및 그밖의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第2 中間地帶라고 부를 수 있다. 第2中間地帶에 屬해 있는 國家들은 二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國家들의 지도층은 掠奪者이며 抑壓者인 동시에 그들이 統治하고 있는 國家들은 美帝國主義의 統制와 干涉과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美帝國主義의 干涉을 벗어나기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나 그밖의 다른 국가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論理에 따라 같은 해 中共은 프랑스와 캐나다 등 一部 자본주의 국가들을 승인, 外交관계를 수립했으며 이들과 交易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中共이 國際政治에서 善惡과 敵과 同志를 가리는

36) M. Yahuda, *ibid.*, p. 150.

기준은 反美主義였다. 第2 中間地帶의 西方資本主義 國家들과 聯合戰線이 가능한 것도 이들국가들이 美國의 干涉과 統制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反美戰線의 共同隊列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其實 中·蘇同盟이 깨어지고 두나라 사이에 紛爭이 激化함에 따라 西方側과의 협조관계가 不可避했겠지만 적어도 名分上으로는 反美를 앞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당시의 中共의 입장이였다.

그러나 文化革命이 끝나고 머지 않아 中間理論은 다시 修正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69년의 珍寶島衝突사건을 거친 中·蘇관계는 완전한 破鏡에 이르렀고 따라서 理論의 修正은 不可避했었다.

## V. 中共外交의 一般的 特徵 —美·中데탕뜨

文化革命이 끝나고 1969년 4월 第9次 中國共產黨 全黨大會가 열려 文化革命의 激動을 마무리지울 무렵 中·蘇關係는 돌이킬 수 없는 破鏡에 빠져 있다. 越南戰에 대한 支援문제를 둘러싸고 中·蘇양국이 심각한 對立을 나타냈었고 文化革命 이전에 이미 毛澤東이 蘇聯은 修正主義라고 말했을 정도로 中·蘇破鏡은 예견되고 있었다.

그러나 中·蘇관계를 破局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태는 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事態였다. 체코슬로바키아事態와 관련해서 모스크바가 발표한 이른바 브레즈네프 宣言(Brezhnev Doctrine)은 특히 中共 지도층을 놀라게 했다. 隣接 社會主義國家에서 社會主義의 장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蘇聯은 武力を 사용하더라도 이를 구출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이宣言은 당시 惡化一路를 걷고 있던 中·蘇 양국관계를 고려하면 분명히 中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中共지도자들은 판단했던 것 같다.

珍寶島사건을 前後해서 蘇聯은 많은 군대를 中·蘇國境지방으로 이동시켰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때 蘇聯은 中共에 대해 奇襲先制攻擊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sup>37)</sup>. 또한 越盟과 中共과의 관계도 越南戰에 대한 中共의 미온적인 支援때문에 상당히 冷却돼 있었고 越盟의 親蘇경향을 더욱 뚜렷했었다. 北韓 역시 64년 이후 親蘇쪽으로 기운 후 文革期間中에는 紅衛兵들이 金日成을 부르조아지라고 욕하는 사태까지 생겨났던 때

37) M. Yahuda, *ibid.*, p. 220.

라 中共과 北韓의 관계 역시 冷却돼 있었다.

이러한 극히 孤立된 그리고 비관적인 상태에서 中共의 對美接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中·美데탕트의 교섭과정에 관해서는 이미 자세한 내용이 發表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美·中데탕트를 전후한 中共의 國際政治觀의 變化를 살펴보기로 한다<sup>38)</sup>.

美·中데탕트를 전후하여 발표된 中美의 國際政治觀에 관한 論文들을 분석해보면 60년대의 그것에 비해 상당한 差異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世界 3分論에서 美蘇의 位置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대로 60년대 중반에 中共은 이미 世界를 帝國主義陣營과 第一中間地帶 및 第二中間中地로 나누었다. 中共이나 기타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당시의 中共의 입장은 극히 애매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冷却되고 있던 中·蘇관계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즉 蘇聯과의 관계가 冷戰상태에 있었지만 中共은 蘇聯을 아직 공산진영에 속해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中共과 蘇聯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은 帝國主義陣營이나 第1, 第2中間地帶와 別途로 第4陣營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中共을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의 第3세계 공산국가들이 第1中間地帶에 속하며 그밖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第2中間地帶나 第1中間地帶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60년대만 해도 中共은 국제정치의 핵심을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對決이라는 기본입장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中間地帶란 공산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龙大한 회색지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中·蘇紛爭의 시작과 함께 中共의 對蘇觀이 변화, 제국주의와의 對決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진영을 이끌 국가는 소련이 아니라 중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지만, 국제정치를 근본적으로 제국주의(미국)와 공산주의의 역사적 대결이라고 보는 중공의 기본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文化革命을 넘기고 나서부터 中共의 國제정치관이 다시 수정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中共은 미국이 帝國主義國家이긴 하지만 老衰해서 아시아로부터 後退하고 있는 斜陽帝國主義國家라고 주장했다.

38) *Peking Review*, No. 16, 1969; No. 21, 24, 25, 1972.

越南戰에서의 後退가 바로 그 좋은例라는 것이다. 또한 中共은 蘇聯을 帝國主義(社會主義帝國主義)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으며 社會主義帝國主義가 美帝國主義보다 더욱 위험스런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9)</sup>. 현재의 國제정치상의 緊張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소련의 야욕을 분쇄하고 國제정치상의 緊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단결해서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번째로 文化期 이후의 中共의 世界觀의 특징은 中共이 國제정치를 세력균형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71년 毛의 側近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任委員會 會長이며 中國科學院院長인 郭沫若是 國제정체를 논하는 글 가운데 세계가 美國, 蘇聯, 日本, 歐州共同體, 그리고 中共이라는 五星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sup>40)</sup>.

국제정치가 美國, 蘇聯, 歐共市, 日本, 中共의 5個 大國간의 세력균형이라는 견해는 바로 키신저나 닉슨大統領의 主張으로서 中共이 國제정치를 이데올로기의 입장이 아니라 實利나 國力中心의 現實主義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毛에 의하면 國제정치를 포함한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矛盾의 끊임없는 연속이라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毛의 矛盾論은 맙스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맑스가 矛盾의 근본요인을 물질적인 힘의 연속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矛盾이라고 주장했는데 비해 毛는 矛盾論을 무한히 擴大 적용하여 모든 것을 矛盾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맑스가 역사발전의 최종단계라고 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矛盾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해 毛는 공산주의사회에서도 矛盾이 존재하며 공산주의 다음에 올 역사발전의 단계에서도 모순은 존재하는, 말하자면 모순은 時空을 초월해서 恒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毛가 주장하는 繼續革命의 論據가 바로 여기에 있다.

文革期 이전의 中共의 外交政策은 근본적으로 矛盾의 論理에 의해 설명되어 왔었다. 國內사정에 따라 矛盾의 내용이 바뀌고 또한 같은 矛盾이라도

39) *Ibid.*

40) John Gittings, "China's Foreign Policy: Continuity or Change?" i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 No. 1.

41) Chong Wook Chung,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Management*, *ibid.*, Chap. 1.

그 강조하는 바가 달랐지만 矛盾이라는 개념의 틀에 의해 국제정치의 動態的側面을 이해하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文革期 이후에 中共이 국제정치를 矛盾이 아니라 勢力均衡이라는 지극히 西歐부르조아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中共外交政策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세번째로 文革期 이후 중공의 外交政策에서 第3 세계의 위치가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9년 4월에 개최되었던 第9次 全黨大會에서 林彪가 발표한 政治報告書는 세계정치를 和解不可能한 矛盾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林彪의 矛盾論은 그가 행한 政治報告書의 主要部分은 아니며 따라서 이것이 앞에 말한 中共이 勢力均衡의 개념을 국제정치분석에 쓰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林彪에 의하면 세계에는 첫째 피압박인민과 제국주의 및 사회주의 제국주의 사이에 矛盾이 존재하며, 둘째 자본주의와 수정주의 국가들 내부의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조아지 사이에 矛盾이 존재하며, 세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제국주의 사이의 矛盾과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矛盾이 있으며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및 사회주의 제국주의 사이에 矛盾이 존재한다고 한다<sup>42)</sup>.

세계정치를 4가지 기본矛盾에 의해 분석하는 것은 60년대나, 더 거슬러 올라가 50년대 또는 40년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林彪의 矛盾論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中間地帶, 특히 弱小國家와 개발도상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矛盾이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그대신 소련을 지칭하는 사회주의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矛盾과 사회주의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矛盾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中蘇의 관계는 和解不可能의 矛盾의 관계로 변했다는 것이다.

1972년에 있었던 中共과 美國과의 데탕프나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도 모두 이러한 특히 文革期 이후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 VII. 四個近代化計劃과 中共의 外交政策

文革期 이후의 中共外交政策은 밖으로는 對蘇紛爭과 國內의으로는 經濟發

42) *Peking Review*, No. 16 (1969).

展이라는 두가지 큰 要因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西方國家들과의 密着은 처음에는 對蘇紛爭이라는 外部的 要因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고 또 對蘇紛爭은 國內的 要因 특히 權力鬭爭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對蘇紛爭이 持續, 長期化하고 특히 4個近代化計劃이 시작된 이후로는 中共의 對西方接近은 中・蘇紛爭보다도 오히려 國內的 要因인 經濟發展의 要求에 의해 左右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見解가 옳다면 中共의 美・日등 西方側接近은 반드시 中・蘇紛爭의 進路와 관계없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말해 中・蘇 사이에 制限된 和解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中共과 西方側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물론 현재 中共은 이미 지적한 世界三分論이라는 이론적 틀을 이용, 國제정치를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中・蘇紛爭이 現 中共外交의 가장 중요한 要因이라고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四個近代化計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中共의 西方接近이 不可避覗으며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 4個近代化가 추진되는 동안은 中・蘇紛爭에 관계없이 對西方依存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中共이 추진하고 있는 4個近代化計劃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막대한 外資와 技術도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규모의 資本과 技術은 蘇聯이나 그밖의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美・日・西歐國家들이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中共이 4個近代化計劃을 처음 밝힌 것은 1978년 2월 말부터 3월 5일까지 北京에서 개최되었던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였다. 華國鋒이 그의 政治報告에서 國民經濟開發 十個年計劃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부터 85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西紀 2000년까지 中共이 農業, 工業, 國防 및 科學技術의 4個分野에서近代화를 이루면서 西方의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의 隊列에 끼인다고 밝힌 것이 4個近代化計劃의 공식 발표였다. 말하자면 華가 밝힌 10個年 계획과 아직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채 2000년까지 先進資本國의 경제발전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세 지도층이 밝힌近代화의 青寫眞이다.

그렇다고 華가 밝힌 이近代화의 青寫眞이 最初의 것은 아니다. 1964년

毛澤東이 西紀 2000년까지 中國을 先進國隊列에 끌어올리겠다는 꿈을 막연 하나마 이미 제시했고 文化革命의 혼란이 가라앉고 林彪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인 1975년 1월의 第 4 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당시 수상 周恩來가 第 4 次 5 個年經濟開發計劃(1976~80)을 발표하면서 비슷한 近代化에의 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周恩來의 꿈은 四人幫사건을 前後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 실천이 연기되었었고 1978년 5월 第 5 期 全國人民不表大會가 열렸을 때쯤에는 第 4 次 5 個年經濟開發計劃의 실천이 기한내 不可能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따라서 第 4 次 5 個年計劃과 第 5 次 5 個年計劃(1981~85)을 합쳐 10個年 國民經濟發展計劃이 수립되었고 동시에 2000년까지 中國을 先進資本國의 隊列에까지 끌어올린다는 近代化에의 꿈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華가 밝힌 近代化計劃은 원래의 계획이 四人幫 사건 등으로 연기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不可避해져서 修正한 것으로 그만큼이나 計劃의 完成은 벅찬 것이다.

近代化計劃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중요한 目標만을 갖추려 보면 [表 2]와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近代化計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속, 기계공업 부분과 石油, 石炭등 에너지部分으로서 이 부분의 開發은 工業의 近代化뿐 아니라 農業의 近代化와 國防近代化에도 寄與하는 것이다.

4個 近代化計劃에서 外交政策에 관련된 것은 이 計劃의 추진이 막대한 外資와 技術도입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近代化의 總費用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대개 6,000억 달러가 所要되며 이중 3,500억 달러 이상이 資本投資라고 推定되고 있다<sup>43)</sup>. 1977년 初의 中共의 外貨保有高가 25억 달러가 채 못되고 金保有高가 20억 달러 정도이며 78년의 輸出이 100억 달러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近代化의 總費用 6,000억 달러가 얼마나 龙大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中共은 이러한 龙大한 資本需要를 주로 石油, 石炭, 그리고 輕工業제품의 輸出에 의해 充當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石油가 外貨獲得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압도적이며 따라서 10個年계획에서 새로운 油田의 개발, 특히 近海油田의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바로 이 近海油田의 개발에 있

43) 世界經濟評論 1979년 1월호, p.76.

表 2: 10個年계획(76~85)의 主要프로젝트 및 그 目標

분야	년도	79 80 81 82 83 84 85	85년의 目標
금속공업	자원 탐사와 자원의 공동개발 : 鞍山, 本溪, 石景山, 武漢, 馬鞍山등의 既設 製鐵所의 改造 : 上海寶山, 河北冀東등 대규모 製鐵所의 新規 건설.	10大 鐵鋼공장을 건설하여 粗鋼年產 6,000만톤의 능력을 갖추고 9개의 非鐵공장을 건설 완료한다.	
기계공업	單品多量 生산체계화 : 製品의 標準화 : 部品생산의 專門化 : 기술 수준을 세계의 70년대의 최고 수준 도달 : 농업기계 및 차동차공업 先行 : 省力化 技術의 도입.	노동생산성을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키고 鋼材 사용율은 70% 이상으로 올린다.	
석탄	渤海灣과 珠江의 日·美·中 공동개발 : 大慶油田등 既存 대규모 공장의 생산능력 증강(年產 4,000~5,000만톤)	10개 油田 및 가스 油田건설	
석탄	兗州, 古交, 大同, 淮北등 大型탄광을 日·美·西獨과 공동개발 : 華東, 東北, 中南지역의 主要 탄광의 機械化 : 그밖의 大, 中 규모의 탄광 기계화.	8개의 탄광 新規 건설 : 年產 10억 톤. 全國에 12개 商品食糧 생산기지 건설.	
전력	大型火力發電所(30~60만킬로와트) 건설 : 全國의 高壓線 전선망 건설 : 長江과 黃河에 日本과 美國과 공동으로 대규모火力發電所 건설.	30개 발전소 新規 건설	
石油化學	尿素, 合纖을 비롯한 總合的인 石油化學 류비나트를 北京, 上海, 南京, 四川, 大慶, 吉林, 蘭州 등에 건설.	各省, 市, 自治區에 최소한 1개 이상의 大型 化學비료공장을 건설 : 紡織原料에 合纖 사용을 4% 이상	
농업	農業機械率 70%이상(80년까지) : 헥타르 당 비료사용량 600kg이상(80년까지) : 農業機械化率 85%이상(85년까지).	食糧生產 4억 톤.	

이 美國은 세계의 어느나라도 追從을 不許할 정도로 技術이 앞서 있으며 따라서 中共은 日本과 美國, 특히 美國의 技術과 資本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78년의 경우 中共의 石油수출은 1천만톤 미만인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이중 80퍼센트 정도가 日本에 輸出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44)</sup>. 현재 中共의 石油는 대부분 內陸의 油田에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東北지방의 大慶油田은

44) Ibid.

全生産량의 半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大慶油田이 이제 老朽단계에 접어들어 생산량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며 그밖의 內陸지방에서 石油매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西北지방과 티벳, 蒙古, 新疆지방은 지역적으로 소비지와 너무 떨어져 있어 수송비가 많이 들뿐 아니라 蘇聯에 가까운 接境지방이라 戰略的 見地에서도 不利하다는 점이다<sup>45)</sup>.

따라서 中共은 近海油田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며 여기에는 美・日의 資本과 技術이 절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中共이 美國에서 도입한 技術이나 資本이 대개 石油資源의 開發 특히 近海石油資源開發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中共의 近海는 黃海(渤海灣포함), 東支那海, 南支那海의 셋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지역이 모두 대규모량의 石油를 매장하고 있을 가능이 농후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60년대 초의 地質탐사에서 밝혀졌다<sup>46)</sup>. 그러나 開發技術上의 문제로서 黃海는 대개 水深이 200피트 以內이기 때문에 石油開發技術上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東支那海와 南支那海는 水深이 깊고 또한 계절적으로 태풍등 난점이 있어 開發이 쉽지 않다.

中共은 현재 渤海灣과 珠江 下流등 국제법상 비교적 분쟁이 적고 또 開發技術上 문제가 없는 近海에서 日本과 美國과 공동으로, 또는 中共 單獨으로 開發작업을 벌리고 있으며 一部 近海油田에서는 이미 生產단계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4個近代化計劃의 규모를 미루어 보면 中共이 머지 않아 보다 水深이 깊고 매장량이 많은 深海로 진출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니 黃海등 中共 近海의 지질학상 구조가 內包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領海權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은 至大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VII. 最近 中共外交의 特徵과 韓半島

毛澤東 死後, 특히 日・中 平和友好條約체결과 美・中 國交正常화 이후의 中共의 外交政策은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가) 中・蘇紛爭이 가까운 장래에 制限된 범위내에서라도 和解단계에 이를

45)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Columbia, 1977).

46) *Ibid.*

가능성이 거의 없다. 蘇聯은 中共의 4個近代化計劃이 完成되는 경우, 특히 國防近代화가 성공하는 경우, 이것이 中·蘇간의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美·日과中共과의 密着이 蘇聯을 겨냥한 것이라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中共의 外交는 蘇聯의 中共을 겨냥한 아시아集團 安保體制를 비롯한 對中共 압력에 대비하고 中·蘇간의 國境紛爭을 방지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蘇聯이 현재 상태에서 中共에 대한全面攻擊을 가해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中共의 北部 지방이나 東北部 또는 北西部에서 制限된 軍事的 政治的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奇襲先制攻擊을 가해올 가능성을 中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히 中共의 核武器개발이 向後 5년 이내에 蘇聯에 대해 最少限의 制沮力(minimum credible deterrence)을 保有할 정도로 진척될 가능성이 놓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中共 西北部 지방에 있는 核시설이나 東北部 또는 北部의 工業시설에 대해 蘇聯이 先制攻擊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蘇聯이 中共을 攻擊하는 경우 美·蘇와 日·蘇 관계가 일시적이나마 冷却되고 더욱 第3世界 국가들에 대해 蘇聯의 支持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내에 中共이 近代化를 성공, 中·蘇 관계뿐 아니라 汎世界的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蘇聯에 절대적으로 不利한 사태가 초래된다고 蘇聯이 판단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中共의 對蘇戰略은 必要이상으로 蘇聯을 자극하지 않으며 동시에 西歐나 第3世界 국가들에 대한 外交攻勢를 강화해서 蘇聯이 中共에 대한 奇襲先制攻擊을 가하는 경우 그 정치적 副作用이 極大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2) 中共은 對日, 對美 및 對西歐에 대한 接近을 강화해서 蘇聯의 위협에 대항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 經濟, 科學技術의 交流를 더욱 증진해서 이들 국가들의 對蘇密着을 방지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外資 및 技術의 도입을 보장하려는데 外交政策의 主力を 두고 있다. 이러한 外交政策에 따라 中共은 日本과 貿易協定을 체결했고 (1978년 2월 및 같은해 9월) 歐洲共同市(EEC)와도 貿易協定의 윤곽을 밝히는 조약(Framework of Agreement)을 체결했고 鄧小平의 訪美(1979년 1월) 時에는 美國과 科學技術 및 商貿에 관한 協定에 합의했다.

3) 이와 같은 中共의 對西方側 密着은 第3世界와의 관계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中共은 현재 第3세계의 革命支持를 줄이고 黨과 黨의 관계보다 政府와 政府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政策은 아시아·아프리카 및 南美에 있는 革新社會主義 政黨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알바니아와의 관계가 惡化된 것도 中共과 알바니아 사이에 第3세계 外交를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즉 알바니아는 中共의 운전한 對第3세계 外交政策에 不滿을 表示했고 유고슬라비아와의 三角關係등이 겹쳐 급기야는 60년대까지 가장 密着되었던 中共·알바니아 關係가 破鏡에 이르고 말았다. 따라서 中共의 西方接近이 深化되면 될수록 中共과 非同盟 團과의 관계는 政府間의 關係에 力點을 두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4) 中共은 原油의 輸出에 의해 外貨收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에 東南亞등에 대한 輕工業製品의 輸出에도 상당한 力點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에 대한 外交攻勢를 펴고 있다. 지난 78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鄧小平과 李先念(黨副主席)이 이들 國家들에 대한 訪問攻勢를 펼고 최근의 中共政府의 태도에서 아세안의 團結을 支持하는 정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對蘇전제라는 정치적 요인도 있으나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78년부터 復權, 貿易政策에 상당한 영향력을 發揮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陳雲은 鄧小平과 가까운 사이로 50년대 후반에 中共이 아세안국가들과 交易을 강화해야 한다고 力說한 바 있어 中共의 對東南亞外交는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50년대와 60년대 중반까지 國務院 副總理 겸 商業相으로서 中共의 對外經濟정책에 他의 追從을 不許하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陳雲은 貿易이 이데올로기 보다 利益과 판매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力說하다가 毛의不信을 받게 되 마침내는 숙청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47)</sup>.

5) 韓半島에 관한 最近 中共의 外交政策을 살펴보면 역시 中蘇紛爭과 4個近代化에 필요한 外資·技術도입이라는 입장때문에 中共은 韓半島에서 軍事, 政治的 安定을 바라고 있다. 口頭上으로 中共은 계속 北韓의 韓半島 政策을 支持하고 있지만 實際 입장은 北韓의 好戰性을 우려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北韓이 韓半島에서 紛爭을 惹起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47) Franz Schurmann, *The Logic of World Powers*(Pantheon Books, 1974), Chap. 4.

록 하는게 中共 外交의 기본입장이라 하겠다<sup>48)</sup>.

이러한中共의對韓半島政策은 지난 78년 5월의 華國鋒의 平壤訪門이나 같은해 9월의 鄧小平의 平壤訪門 그리고 10월의 東京訪門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華國鋒이나 鄧小平이 平壤에서 행한 公式연설을 분석해 보면 中共은 韓半島에서 美軍撤收를 주장하고 유엔司令部의 解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北韓의 입장과 같으나, 첫째 北韓이 駐韓美軍의 無條件 全面即刻撤收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中共은 全面撤收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北韓이 美軍의 韓半島駐屯이 韓半島의 긴장을 조성하고 韓半島에서 戰爭을 가능하게 하는 主要要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中共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北韓과의 異見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셋째 北韓이 中共과 北韓간의 友好關係가 『피로써 맺어진 好戰的 關係』(militant ties born in blood)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해 中共側 주장은 好戰的이라는 단어가 빠진채 『피로써 맺어진 血盟』(relations tied in blood)라고 하므로써 한국전쟁에서 中共側이 北韓을 도와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넷째 韓半島에서 日本의 경제적 利害關係가 깊어지는데 不安의 要因이라고 한 北韓의 주장에 대해 中共은 이에 대한 言及을 回避함으로써 이러한 北韓의 주장에 同意하지 않으며 日本과 韓國간의 關係強化에 반드시 中共이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사했다. 鄧小平의 發言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外交政策에 영향을 줄 수 있는 中共의 外交的 能力에는 限界가 있다. 70년대 초기 이후 北韓이 親中共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北韓에 대한 蘇聯의 영향력은 아직 상당한 것으로 推測되고 있으며 특히 軍事援助의 면에서 보면 北韓이 必要로 하는 現代式 武器등을 中共보다 蘇聯이 가지고 있어 北韓의 中共傾側은 限界가 있다. 지난번 華와 鄧의 訪門時에 金日成의 연설문이 支配主義에 반대한다는 등 中共의 입장을 支持하면서도 蘇聯에 대해 지나친 자극적인 用語는 삼가하고 있는데에서도 분명히 추측할 수 있다. 60년대 후반기 越南戰에 대한 支援문제를 둘러싸고 中共은 겉으로는 越盟을 支持하면서도 실제로는 극히 制限된 援助를 했을뿐 실제 美國과 간접적인 協商까지 벌리는 등의 태도를 취한 일이 있다. 결국 越盟은 中共의 이러한 兩面的 태도에 불만을 품고 親蘇的 政策을 택하고 말

48) 中共機密文件彙編(臺北；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輯印 1977), 外交類編 pp. 323-427.

았다.

中共은 越南戰을 둘러싼 이러한 쓴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며 그만큼 中共의 北韓政策은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다.